

법난 시대별 연구 활발

권력유착·교계 타락·내부분열서 원인 찾아

조선조-현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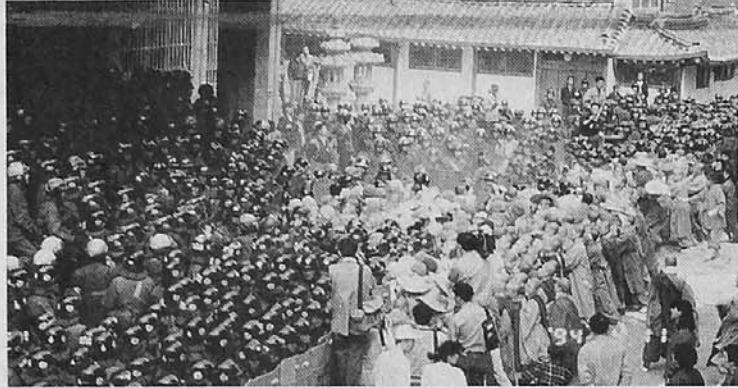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법난을 불교사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법난관련 논문은 조선시대와 일제-해방이후 그리고 출범의 법난까지 시대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이같은 논문은 김태현(경주신라문화원 간사), 박희승(개혁회의 총무인 포교부 기획위원), 정광호교수(인하대 사학과)가 <석림>제28집에,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복지학과)가 <중앙승가대 논문집>제3집에 각각 발표했다.

이들 논문은 한국 불교사에 나타난 법난에 대한 국민과 불자의 의식을 새롭게 방향지우고, 법난자체의 상황요인을 넘어 미래사회의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김태현씨는 「조선시대 법난에 대한 소고」에서 오늘날 한국 불교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선의 법난불교의 연속성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라고 지적하고, 현실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조선의 법난불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었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례로 김씨는 "해방이후



△조선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불교법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띠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조계사사태의 한 모습.

정권교계, 특히 정통성을 상실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정권이 집권을 할 때마다 발생했던 법난은 조선왕조의 불교 탄압을 정례로 모방한 현대판 조선의 법난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역사에 나타난 불교 탄압의 이면에는 반드시 당시 불교계의 타락이 존재했고, 특히 정치권력과 유착이 심할수록 법난의 강도도 또한 강했다고 지적하고, "조선의 법난은 유교의 발전을, 해방이후 공작 정치적 법난의 결과는 기독교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광호교수는 "일제 침략 시기 속에서 불교계가 겪었던 법난의 배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정교수는 "일제의 동화정책의 전위역할을 식민지의 불교가 수행토록 강요받았다"고 말하고, 일제 강점시대 우리 불교의 법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사찰령(寺刹令)이 일제의 불교탄압의 주요 도구였다"며, "일제는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 사법등을 통해 한국 교정(敎政)을 마음대로 장악했고, 친일 본산 주지들은 이 법령들을 기초로 많은 전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희승씨는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법난과 그 교훈」을 통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군정과 역대정권의 종교정책과 불교법난의 배경을 살피고, 그 속에서 불교자주화의 방안을 모색했다.

박씨는 해방후 불교인들이 일본불교의 잔재를 자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실패한 이유로 "불교계의 분열"을 들고, "미군정은 이 틈을 이용해 사찰령을 존속시켜 충무원을 어용화하고 불교혁신 운동을 탄압해 결국 지금까지도 불교혁신의 과정을 남기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씨는 또 "불교가 내부분열로 시끄러운 동안 기독교계는 크리스마스의 국경일 제정, 기독교방송의 설립, 군복·형목제도의 해제적 해택, 각종 교육시설의 확충등을 통해 1945년 30만도 안되던 기독교인을 50만만에 천만명으로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1994년 불교 조계종 사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발표한 류승무교수는 올봄 법난의 원인이 '불교와 정부의 관계 및 불교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자기 모순 속에 빠진데다 그 모순이 '김영삼정부-서의현재'에 이르러 폭발한 데 있다"고 파악했다.

류교수는 또 이번 조계종 사태가 심각한 혁명의 보편적인 4단계를 그대로 밟아갔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비폭력 전략, 전국승려대회, 산문폐쇄 등의 전략·전술은 가장 불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이번 사태의 남은 숙제로 "불교개혁의 실천과 제도화 및 불교계와 정부간의 끊임 고리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들었다.

한국불교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사회관 정립 및 진정한 불교 자주화를 위해서도 법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불교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理·事는 일심을 설명하는 용어”

송재운 교수 「화엄의 심성설」서 밝혀



송재운 교수

동국대 송재운 교수는 지난 달 25일 대우재단 발간된 강연실에서 열린 한국중앙불교학회(회장 송석구) 주최 제65회 월례 학술발표회에 참석, 「화엄의 심성설」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송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화엄에서는 사법계관(四法界觀)을 확립하고 있지만 그 근본원리는 이(理)와 사(事)이고, '이'와 '사'는 일견 이원적인 대립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심(一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법계는 일심의 소현(所顯)이라는 점에서 총체적

동행(同相)과 이상(殊相), 성상(成相)과 괴상(小相), 동행(同相)의 육상(六相)을 원용자재의 세계로 일깨우게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그 밑바탕에는 심의 공성(空性)이 자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보각스님(복지학과)은 보살계를 수지하거나 신행년수가 오래된 불자일수록 인공임신중절 수술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 충격을 줬다.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논문집으로 엮어져 발간됐다.

「태고선종 연구」등 9편 논문 발표

중앙승가대 교수

중앙승가대(학장 송산)는 지난 달 28일 정전관에서 제3회 교수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논문발표회에는 △종범스님의 「태고보우의 선종에 관한 연구」, △태원스님의 「정토사상에 나타난 잠언(莊嚴)△본

각스님의 「화엄관법(華嚴觀法)에 있어서 공관(空觀)의 의의」, △김상영교수의 「보우의 불교부흥운동과 그 지원세력」, △조명달교수의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동화(童話考) 1」, △보각스님의 「불교인의 임신중절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등 모두 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석림 28집 발간 논문 9편 실려

동국대학교석림회(회장 하립)는 최근 <석림> 제28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에는 한상범교수(동국대 법학과)의 「현대불교인의 사회인식의 실

화를 위한 제언」, 정천구교수(인천대 정의과)의 「불교정치론의 현대적 조명」, 김성구교수(이대 물리학과)의 「현대물리학과 색즉시공」, 김용운교수(한양대 수학과)의 「불교와 과학」등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종익박사 유고집 발간 15일 송헌클럽서 출간기념



이종익박사

고 이종익박사(전 동국대 교수)의 유고는 논문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 논문집에는 원효·보조·조계종·천태종·선학관 등 불교관련 부분과 종교와 역사·한국사상·중국사상권 등 8편으로 분류, 모두 31편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논문집 출간기념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반 한국일보 13층 송헌클럽에서 열릴 예정.

질병은 어떤 업으로 오며 대처 방법은

문 저는 20여 년전부터 감상선 기능저하증과 습진에 시달려 왔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기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질병은 과거의 어떤 인과업으로 오는 것이며, 또 제 병을 공부재료로 삼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근본에 어긋나지 않는 길인지요.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최희자)

답

먼저 제 몸에 대한 생각부터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이 육신을 '내 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글우글 공생하고 있는 소유주-공동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많은 중생의 국토인 셈이죠. 마치 이 지구나 우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들이 모여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들 몸 속의 중생들도 수억개를 거처온 의식으로 뭉쳐서 몸을 지우 삼아, 집 삼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기 이전에 수 많은 중생이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잡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답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기공법으로 몸을 다스렸다고 하는 데 단전호흡으로 기를 모으다가 제대로 풀어나지 못해서 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디. 요즘도 기공을 하다가 별의 별 탈을 얻어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디.

기공법이란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몸 속의 수 많은 생명들, 의식들은 기공과 이랑과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를 잘 다스렸다 해도 이 몸뚱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으로 다스려야 참말로 사대(四大)를 타고 통신이 잘 되어서 자중적으로 말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며 모자라면 본래고 넘치면 별 것은 흩어내서 그야말로 '마음 먹은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공법을 한다지만 이왕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본래 무량한 보배창고이니 기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몸도 자재로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공법을 염하면서 어떤 능력을 얻어보려 한다는 데 요즘같은

지상상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령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천마을선님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생기고,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대통령이 나서고, 사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경우라면 제 주인이 나서야 하겠지요. 그럼 제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자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사랑·자신의 의식세계를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인이라면 왜 병을 고치지 못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왜 병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처리하지 못합니까? 실은 그게 주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자리, 참 나 주인공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러나 참 주인을 의식해 의심치 말고 철석같이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육신, 이 공동체를 형성케 한 주인이 내 몸을 해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나를 있게 한 그 근본과 지금의 나는 따로따로 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몸에 병이 생겼다 해도 그 병은 다 '나'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이나 '나'와 다르지 않고, 나를 있게 한 근본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분별을 지어 팔팔 매지 마시고 볼 아닌 근본자리에 턱 놓고 '주인공의 일이나 주인공이 해결하라'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도 나와 풀이 아니니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약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공과 불법공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문 저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기공법(氣功法)을 수련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공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최동형)

문명시대에 오신통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안방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을 보고 듣고 잠시 잠깐에 대안을 건네는 세상에 말입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 기공보다 불법공부에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으면 생활에 소용할 것 같은데

문 저는 무종교입니다. 다만 요즘에서 불교 관련 책을 자주 보아서 많은 매력을 느껴 불교를 믿어볼까 하는 데 불교를 믿게 되면 생활에 소용해 지지 않겠지 염려됩니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4동·구유흥)

답 어느 때 누가 내게 물기를 사람은 일기 위해 삼나기 살기위해 먹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되물기를 '먹이 말라 병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데 그때 내가 이걸 살리고 마시나 마실려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하니, '그런 생각없이 그냥 먹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속에 불법이 있고 거기에 불교가 있습니다. 평상시 생활을 떠나서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겪는 가운데 산 진리, 산 교훈이 있습니다. 생활을 떠나서 따로 불법을 구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따로 구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활도 잃고 불법도 잃게 됩니다.

풀 한 포기라도 불교 아닌 게 없고 별래 한 마리라도 불교 아닌 게 없으니 살아가는 게 불교입니다. 따라서 생활을 불교적으로 바꾸는 게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오낙원

동국대학교

총장:민병천

중앙승가대학

학장 임송산

교수 및 교직원 일동

전화 925-5507-9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삼화불교대학

학장 해인

· 불교 유아교육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 불교미술과
· 불교학과 / 학생일동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511-1080, 511-2026-8
팩스 : 511-1080